



“모심기 재밌어요” 11일 오전 광주시 북구 광주동초등학교 충효분교 친환경 벼농사 체험학습장에서 충효분교 학생과 교사, 주민들이 모내기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조직은 ‘새바람’ 인사는 ‘칼바람’

首長 바뀐 광주시·전남도, 당선자 코드 맞게 인사·조직 시스템 획기적 개편 움직임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의 인사·조직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측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함께 시민·복지 관련 업무(부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전남도지사 인수위원회도 누적된 인사 및 조직 문제를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11일부터 각 실·국별 업무 보고(공유)를 받고 있는 광주시장 인수위원회는 향후 인사 및 조직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말을 아꼈지만, 시민·민원·복지 관련 부서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했다. 이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가 그동안 ‘시민’과 ‘소통’을 핵심 정책 코드로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과 인사를 다루며 ‘힘있는 부서’로 통했던 기획조정실과 안전행정부의 기능이 일부 줄어드는 대신 시민·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을 담당하는 복지건강국과 일자리 창출 분야는 민선5기에 못지 않게 중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 내 시민협력관실의 기능 강화나 분리 격상도 검토할 수 있으며, 올해 소규모로 신설할 광주시복지재단도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당선자측이 의도하는 방식의 조직 개편이나 인사 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서에 인사 혜택(점수 가중치)을 주는 기존 인사 시스템을 개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기 초 제

대로 된 시스템 준비도 없이 조직개혁에 나설 경우 조직 내 혼란과 반발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도 박준영 도지사의 재임이 10년간 이어지면서 인사 평가기준이 다소 느슨해진데다 조직도 방만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대규모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꼼꼼하고 치밀한 이낙연 당선자의 업무 스타일을 감안할 때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능률을 높이는 정도에서 진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 시기도 이 당선자가 충분히 도정을 파악한 뒤 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과거 5년간 인사에서 무리하고 공경하지 못한 사례, 승진인사 남발에 의한 파행 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연공서열을 지킨

것도 아니고 ‘발탁인사’라는 명목 하에 계장이 바로 과장으로 승진하거나 경력이나 실적이 미비한 간부들이 부단체장으로 나가는 사례가 잦았다는 것이다. 조직과 관련해서도 통·폐합 등 대규모 개편이 예고됐다. 가장 먼저 투자정책국과 경제과학국이 거론됐다. 기업유치, 투자개발, 기업도시와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등이 부러져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R&D) 기관이 지역별로 분산돼 있고 소장이나 센터장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당선자도 일부 R&D 기관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부동산 바람 타고 청약통장 가입 ‘열풍’

광주 가입자 39만1601명 ... 2년새 10만명 늘어

지난해부터 광주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분양시장 혼풍을 타고 당첨 즉시 웃돈이 붙는 사례가 많아지자 투자를 위해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지역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청약 열풍은 건설사에 당장 ‘계약률 대박’을 안길 수 있지만 잔금을 치르는 입주 시기에 ‘입주 포기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광주지역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39만1601명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서서히 시작된 2012년 4월의 28만1604명보다 39.1%나 늘었다. 가입 6개월 뒤에 부여되는 1순위 자격 수도 같은 기간 7만5361명에서 11만6892명으로 55.1%나 증가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나주로 인해 전남지역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크게 늘었다. 아파트 분양 전인 2012년 4월 23만9705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올 4월 31만2193명으로 30.2% 늘었고, 1순위 수도 7만4538명에서 10만3746명으로 39.9% 증가했다. 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한 데는 지역민이 분양권을 ‘확실한’ 투자처로 인식하면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광주의 경우 과거 청약통장이 없어도 3순위에서 분양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지만, 광주 수완지구의 투자자들이 ‘목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청약통장을 제대로 수단으로 보는 지역민이 늘었다는 것이 분양업계의 설명이다. 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 관계자는 “청약통장의 발급조건이 2년 전보다 완화되면 6개월이면 1순위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며 “부동산에 일찍 눈 뜬 투자자들이 당첨만 되면 1000만원 가량의 짝퉁 소득을 올리자 나 나 할 것 없이 가입한 것도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1순위 자격이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광주와 혁신도시에 분양된 중흥 S클래스, 영무에다움 등은 대부분 그 지역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일부 몇 다방은 현장에서 500~1000만원의 웃돈을 제시하며 분양권을 사들이고 있으며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도 없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받고 바로 팔 수도 있다.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광주 동구 학동에 분양, 최고 2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된 무등산 아이파크의 경우, 웃돈이 2000~4000만원까지 형성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잉된 청약 열기가 향후 건설사 입찰에선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시세차익을 위해 1~3개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2년 뒤인 입주 시기에 자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입주에 맞춰 잔금을 받는 건설사로서는 ‘입주 포기사태’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 5년 전 수완지구의 경우 입주 시기가 다가오자 입주를 포기한 수요자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은 ‘올머겨자막기’로 할인분양에 나서야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세월호 참사 수습에 예산 830억 투입 정부, 유병언 농지 강제처분 나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 830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고 수습에 국방부가 259억9000만

원, 해양경찰청 234억원, 교육부 107억원, 안전행정부 93억6000만원, 해양수산부 70억원, 보건복지부 33억4000만원 등의 예산을 집행했다. 경찰청(9억7000만원), 법무부(6억7000만원), 방위사업청(6억5000

만원), 소방방재청(5억2000만원), 기상청(2억원), 문화재청(1억원), 여성가족부(7000만원)도 사고 수습을 지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경해진해운 회장)의 차명 재

산으로 알려진 영농조합의 농지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해 강제처분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8개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935억원 상당이며 이 중 943억원대인 하나둘셋영농조합 등 3~4곳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으로 밝혀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천경자 화백 살아있을까 ▶2면

나주 문화재 화재 무방비 ▶11면



월드컵 '축구전쟁' D-1 ▶18·19·20면

광신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60년  
1954  
2014  
100th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상생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C 200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44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8단, 복합CO<sub>2</sub>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with Powermatic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8단, 복합CO<sub>2</sub>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8단, 복합CO<sub>2</sub> 배출량 111g/km  
 모든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나 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수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